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국제모터쇼에서 선보인 도요타 자동차의 1인승 컨셉트카

50년 후의 세계 10대 기업

글_인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

과 학기술 예측조사를 한다고 한다. 전에도 해왔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폭넓게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된다. 예측이란 원래 틀리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예측 결과는 언제나 관심을 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측의 오류를 어느 정도나마 줄여 보자는 의도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 자칫 기술 자체의 발전논리에 빠지거나 공급자적 입장에서기 쉽지만, 비(非)전문가들은 필요(needs) 측면에서, 또 기술적 논리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그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직하다.

그렇다면 똑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다른 취지에서 시도된 각종 예측과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측이라면 더욱 좋다.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격주간지 포천지는 얼마 전 50년 후, 그러니까 2054년의 '가상 세계 10대 기업'을 보도했다. 미래학자 피터 슈워츠가 선정했다는 '50년 후 세계 10대 기업'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을까.

10대 기업 중 우리가 이름을 아는 기업은 도요타, IBM, 네슬레, 뉴스코퍼레이션 등 4개뿐이다. 나머지 6개는 모두 가상 기업들이다. 물론 지금과 기업 이름이 같다고 해도 그 비즈니스 내용은 크게 다르다.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

50년 후 1위 기업은 **아마존베이다**. 가상기업이다. 지금의 아마존과 e베이가 합병하고, 검색엔진회사까지 인수해 탄생한 회사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업무 등에 걸친 통합서비스 제공과 첨단 디지털 쇼핑도구를 이용하는 '가상 쇼핑(virtual shopping)'이 특징이다.

2위는 **도요타**다. 연료전지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자동차업체를 제패한다. GM과 포드 등은 마케팅 및 판매회사로 바뀐다.

3위는 **시노가존**이다. 이 역시 지금은 없는 기업이다. 에너지 생산과 운송, 공급을 일괄 처리하는 최초의 천연가스 회사로, 엑손과 러시아 가스업체가 합병한 뒤 중국 업체인 시노가스를 인수해 탄생한다. 중국 상하이(上海)에 본사를 두고 15억 명의 중국인과 70억 명의 세계 인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4위는 **시노바이오크프다**. 중국이 국가주도로 세운 기업으로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혁명을 업고 세계적 생명공학 기업으로 부상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밀리게 된다.

中(上海)·韩数字内容企业交流会 2003年11月6日



主管单位：韩国信息通信部
 主办单位：韩国信息通信国际合作中心(ICA)
 釜山信息产业振兴院(BIPA)
 支持单位：上海软件行业协会、上海信息服务业行业协会
 计算机世界报社
 宣传组织：北京乾弘投资咨询有限公司
 媒体支持：计算机世界网

중국 상하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IT대표단의 기업설명회가 중국 상하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렸다.

5위는 **인도소프트**다.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이 합병하고 사명을 인도소프트로 바꿔 본사를 인도 뭍바이로 옮긴다. 인도 인력이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6위는 **IBM**이다. 2023년 음성으로 조작하는 양자컴퓨터를 생산한다. 양자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해 기상 예측과 미사일 방어, 교통 통제 등에 활용되는 등 또 한번의 정보기술(IT) 혁명을 촉발시킨다. IBM은 2035년에는 이미 10년 전 인텔을 인수한 HP를 사들여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다.

7위는 **피텔코**다. 인도 소프트웨어회사로 미국 AT&T의 계열사들을 사들여 전화(벨), TV(RCA), 인터넷(시스코), 무선전화(노키아) 기능을 합친 '텔레프레즌스(TP)' 서비스를 내놓으며 부상한다. 가정과 사무실마다 TP가 설치돼 누구나 제3의 장소로 가상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8위는 **네슬레**다. 이유식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의약품을 연계하는 새로운 식품을 생산한다.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를 모토로 내걸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억력 촉진 초콜릿 등을 출시한다.

9위는 **나노보틱스**다. 21세기 중반 나노 혁명을 주도해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업이다. 원자 크기로 제품을 만들며 각각정에 레이저 프린터 크기의 '탁상 공장'을 설치해 원하는 제품

을 직접 만들도록 한다.

10위는 **뉴스코퍼레이션**이다. 영화, 신문, 잡지, 도서, 음악 등 모든 매체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미디어-텔레프레즌스(MTP)'를 활용하면 누구나 개별 경기나 장면에서 스포츠 스타나 영화배우 등으로 가상 활약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업 예측이면 과학기술 예측과 충분히 연관시켜 볼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갑자기 씁쓸한 기분도 든다. 왜일까. 짐작하겠지만 미래학자 피터 슈워츠가 선정한 50년 후 10대 기업은 그것이 실제기업이든 가상기업이든 한국에 본사를 둔 것은 하나도 없다.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반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50년 후 생명공학-중국, 자동차-일본, 소프트웨어-인도라면 우리는 '무엇'의 한국이 돼 있다는 말일까. 우리가 열심히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하는 이유도 실은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함일 텐데...

정치가들은 특하면 G7, G10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머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G7, G10 국가란 간단히 말하자면 세계에서 7번째나 10번째 가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기술 또한 그 정도가 돼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⑩